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일본 내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발표 및 토론 진행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과제명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연구

### 출장기간

- 2024.3.14.(목)~2024.3.16.(토) (2박 3일)

### 출장국가(도시)

- 일본(동경)

### 출장자

- 황남희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3.14.	한국(인천)			출국
3.15.	일본(동경)	도쿄대	김성원 교수(도쿄대학) 등 3명	보사연-연구회 연구교류를 위한 사전논의
3.15.	일본(동경)	도쿄대	김성원 교수(도쿄대학) 등 연구회 회원 등 약26명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세미나 발표 및 토론
3.16.	일본(동경)	도쿄대	배준섭 교수(메이지카쿠인대학) 등 연구회 회원 약 12명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회원 출판기념 북콘서트 참석
3.16.	한국(인천)			귀국

## 2 출장 주요내용

①	보사연-연구회 연구교류를 위한 사전논의
일 시	2024.3.15.(금). 12:00-14:00
장 소	동경(도쿄대학)
참석자	김성원 교수(도쿄대학), 김원경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 오세웅 교수(리츠메이칸대학),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소개 및 운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적자로 일본에서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 인맥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네트워크로 확장됨.</li> </ul> </li> <li>○ 연구회는 자율적인 모임으로 회장, 대표 등을 선임하지 않고, 처음 연구회 운영을 시도한 김원경교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연구회 회원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와 교류를 위해 참여하고 있음.</li> <li>- 연구회 활동을 강요하거나 관련 규약들을 마련하지는 않음.</li> <li>- 별도의 운영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미나 등 연구교류시 연구회 회원 각자의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음.</li> </ul> </li> <li>○ 2000년 연구회 결성 당시 고령자 관련 복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으나, 현재 연구회 회원 구성이 다양해지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한일복지사회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6(토)에 개최되는 연구회 회원의 출판기념회 이후 향후 연구회 운영 방향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li> </ul> </li> <li>○ 연구회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시절에 시작되어, 1년차에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 개인별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2년차에는 연구테마를 정해서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3년차에는 회원 공동의 연구를 통해 책발간을 위한 진행을 했으며, 현재 책 출판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일본어로 일본에서 출판</li> </ul> </li> <li>○ 현재 연구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더 논의의 여지가 큰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회의 목적이 일본에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일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li> </ul> </li> </ul> <p>□ 보사연-연구회의 연구교류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5 세미나는 연구회에서도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개최하며, 전국 각지의 회원들 간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임. 여기에 보사연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임.</li> <li>○ 이러한 보사연-연구회의 연구 교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사연-연구회간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면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도 연구교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보사연-연구회 간의 연구 교류는 개별 연구자간의 공동연구(보사연 연구보고서의 공동연구진)나 계간지인 국제사회보장리뷰의 필진 참여, 그외 보사연의 일본 국외출장시 지원 등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임.</li> </ul> </li> </ul>	

- 현재 일본에서도 한국의 정책사례, 특히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메이저 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시리즈 특집 기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임.
- 연구회의 회원들도 꾸준히 한국의 정책에 대해 접하며, 보사연의 방대한 연구자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보사연을 비롯하여 한국의 국책연구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매우 흥미롭고 유용함. 일본이나 다른 국외 기관에서도 한국과 같이 연구보고서 원문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지 않고 있음.

**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공동 주최 세미나**

**일 시** 2024.3.15.(금). 14:00-17:00

**장 소** 동경(도쿄대학)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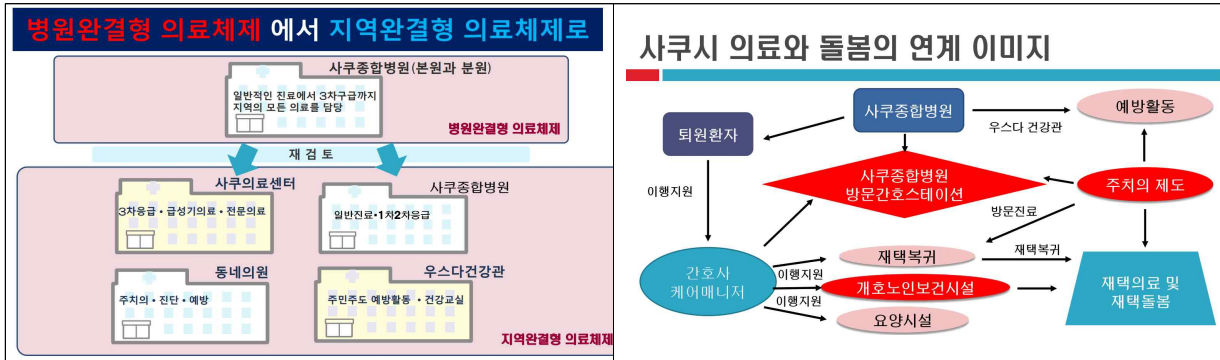
\*현장 참석: 약 20명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김성원 교수(도쿄대학), 김원경 교수(메이저가쿠인대학), 김명중 교수(아시아대학), 이성한 교수(사쿠대학), 배준섭 교수(메이저가쿠인대학), 공영종 교수(불교대학), 강민호 교수(도시샤대학), 오세웅 교수(리츠메이칸대학), 공영주 교수(세이난가쿠인대학), 소진 교수(추부대학), 이은심 교수(소와여자대학), 유정희 교수(무사시노대학), 김민정 연구원(릿교대학), 이동진 박사과정(도시샤대학), 강수향 석사과정(도쿄대학), 이해린 대학원생(릿교대학대학원)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온라인 참석: 약 6명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김석호 교수(아이치현립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 최경덕 부연구위원, 이윤경 선임 연구위원, 임지영 전문연구원, 최인선 연구원 등

주제발표

- 세션1. 일본 발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대책,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김명중 교수: 아시아대학)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 일본의 저출산 원인
  -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책 등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
- 세션1. 한국 발표: 한국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변화와 향후과제(황남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현상
  - 인구고령화 현상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변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최근 대책에 대한 인식과 변화
  - 향후 정책과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기업의 책무 명시
- 세션2. 일본 발표: 인구소멸 지역의 노인돌봄 현황과 이슈: 일본의 제도와 사례(이성한 교수: 사쿠대학)
  - (제도) 노인돌봄의 국가적 과제
  - (사례) 사쿠지역의 의료와 돌봄의 연계

- (결론) 병원완결형 의료에서 지역완결형 의료로



- (과제) 인구소멸지역의 노인돌봄의 과제 및 전망

○ 세션2. 한국 발표: 지방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김세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의 지역 인구변동 현황
- 한국의 지역소멸 대응 정부정책
- 노인의 AIP를 위한 의료-요양 관련 서비스
- 노인의 AIP를 위한 소멸위험지역 돌봄체계 한계
- 노인의 AIP를 위한 소멸위험지역 돌봄체계 개선방향

□ 토론

-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 소규모의 다양한 시범사업이 대부분 본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나, 정책대상이나 예산 등 사업규모가 작아서 이들을 정리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현실
- 한국의 돌봄 사회화는 탈가족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임. 그 과정에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 관련 자원 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저출산대책은 매우 방대하나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감소, 주거 및 고용 지원 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난임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보다 더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을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향성 전환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적절히 추진되는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한국, 보사연에서는 2040년 대상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는 거의 없지만 ‘소자화대책’, ‘후생노동백서’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참고가능할 것임.
  - 일본에서는 만혼, 비혼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만남기회의 부족, 고용불안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젠더형평성이 낮아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일본에서 한국의 저출산 이유는 1) 높은 교육비, 2) 높은 서울집중도, 3)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일본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③	한일고령자복지연구회 회원 출판기념 북콘서트
일 시	2024.3.16.(토). 10:30-13:00
장 소	동경(도쿄대학)
참석자	배준섭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 김성원 교수(도쿄대학), 김원경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 이성한 교수(사쿠대학), 공영중 교수(불교대학), 강민호 교수(도시샤대학), 오세웅 교수(리츠메이칸대학), 공영주 교수(세이난가쿠인대학), 소진 교수(추부대학), 이은심 교수(소와여자대학), 김민정 연구원(릿교대학), 이동진 박사과정(도시샤대학), 강수향 석사과정(도쿄대학),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p><input type="checkbox"/> 책제목 및 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한국형 복지 레짐의 형성과정 분석-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일본어로 출간</li> <li>○ 저자: 배준섭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li> </ul> <p><input type="checkbox"/> 책내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집필하며, 보다 대중적으로 수정</li> <li>○ 문재인 정권기까지 주요 4개 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후발복지국가론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완하는 것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가 아닌 정치외교학전공자라는 관점(아웃사이더의 시선)에서 통설적인 이해에 도전을 하고자 하였음.</li> </ul> </li> <li>○ 한국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국가유형론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의 주요 질문은 한국은 왜 경제는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인가임.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복지 측면에서는 재정 지출 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에서 공통성으로 경제요인(국내요인, 국외요인), 다양성으로 정치요인(계급이익, 정치체제, 정치제도, 유형론)을 구분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존연구와 큰 차별점임.</li> <li>- 선행연구들은 부분적인 설명에 머무르며, 제도의 확대와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후발복지국가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ul> </li> <li>○ 한국은 왜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각 사회정책의 특징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 강한 전제이나 선발복지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정책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사회정책의 제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임.</li> </ul> </li> <li>○ 복지국가 수준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각 사회정책 수준에서 분석한다면, 복지국가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정책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인식임.</li> <li>○ 주요 4개 정책을 선정한 이유는 오래된 사회적 리스크와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의 밸런스 이자 거의 같은 시기에 정치 과정이 전개된 정책,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임.</li> <li>○ 국민연금은 경제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35년 동안 추진되어 역사적으로 짧은 것을 특징으로 찾기에 무리가 있음.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령층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의 없음. 다만 고령층 빈곤문제는 기초연금으로 대응. 도입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웠고 복지에 관심없는 권위주의 정권이기에 언론의 자유가 있었음.</li> </ul>	

- 반면 건강보험은 복지정책으로 도입됨.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에서 조합주의로 도입한 이후 통합 일원화로 인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한 질적 전환으로의 경험이 있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양호한 편이나, 낮은 의료보장성이 문제. 역대정권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제도에 잘 반영되진 못함. 민주화 후 정치과정의 특징으로 이익단체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었음. 즉 대립중재자의 부재
  -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됨. 도입 당시 고령화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등 선진국과 다른 고민을 겪음.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질적 전환이 있었음.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결국 영세시설이 난립하는 제도 유산의 부재. 시민단체는 무관심하고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 결정권 위주의 정권기와 유사한 특성
  - 보육정책은 정치과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큰 특징. 오랜기간 인구억제정책을 채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인구감소 인식. 한국 정부의 진단은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보육 인프라 부족임.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투자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역대정권은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였고, 질적 과제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유아교육학계와 사회복지학계의 대립,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민간보육시설의 대립축 형성. 이후 정권의 성향(좌파, 우파)에 상관없이 서비스 질 우려로 공공성 강화 시도하고 있으나 잘 작동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 후발복지국가로서의 구조적 제약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정치과정이 전개된 제도간에도 제도 변화의 성격 차이가 관찰됨. 즉 구조적 제약요인만으로 설명안 되는 부분이 있음.
    - 국민연금: 정부의 개입 최소화
    - 건강보험: 정부의 역할 확대
    - 장기요양보험: 정부의 개입 최소화
    - 보육정책: 정부의 역할 확대
  - 이들 제도간의 공통점은 최초의 제도 설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성 강화가 보다 우선되는 것임. 이러한 차이는 초기 단계의 제도 설계가 주된 것으로 국민연금은 피난 회피의 정치, 건강보험은 보통 복지 정치임.
  - 후발복지국가는 순서가 역전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약되어 있으므로 참고 사례로 가치가 있음.
- 토론
- 주된 독자층이 누구인지 모호한 측면. 일반 대중인지, 학생인지, 연구자인지 등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함께 논의하지 못한 부분, 정당간의 이견이 어떻게 조정되며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담겨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음.
  - 보육정책의 경우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지나한 역사가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었다면 보다 흥미로웠을 것임.

2024.3.15.(금).  
12:00-14:00

사전논의  
및 오찬



2024.3.15.(금).  
14:00-17:00

연구  
세미나



2024.3.16.(토).  
10:30-13:00

출판기념  
북콘서트

